글_전홍윤(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팀장)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2006년은 병술년(丙戌年), 곧 십이지(十二支) 동물가운데 11번째 지킴이인 개의 해다. 예부터 개는 잡귀와 액운을 물리쳐 집안의 행복을 지켜주는 동물로 인식되어 왔다. 통일신라시대에는 개가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장식되거나, 무덤 안에 부장품으로 쓰였다. 또한 액(厄)을 막기 위해 붙이는 문배도(門排圖)에도 개가 단골로 등장했다.

이처럼 개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반자다. 그래서인지 개를 빗댄 속담도 유난히 많다.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일상에 쫓기는 현대인들은 아무 걱정 없이 주인만 따르면 되는 개를 바라보며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부러워했고, 또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 사람들에게 '개 눈에는 ×만 보인다'고 하며 속물근성을 비웃기도 했다. 이처럼 개는 우리 삶 속에서 기쁨과 슬픔, 분노와 애증의 대리물(?)로 함께 살아왔다.

새해에도 여전히 부는 부자열풍

몇 해 전,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는 모 카드사의 광고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것처럼 최근 대중의 화두는 '부자 되기'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은 '부자 되기 열풍'에 대해 88%가 '당연하다'고 답했다. 또한 '부자열풍'은 단순히 '돈많은 사람'에 대한 막연한 부러움과 시샘에 그치지 않고 부자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해 태도와 생활습관을 연구하는 학문적 접근까지 이뤄지고 있다.

연구에 의하면, 전 재산이 5억원(현찰 1억원 정도)인 사람들을 부자라고 볼 때 우리나라에는 대략 80~90만명의 부자가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5%도안 된다고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부자열풍은 역설적으로 이런 부의 편중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연구 결과는 어찌 보면 허무(?)하게도 '노력해야 한다'는 자극히 평범한 진리를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으로는 '인적 네트워크를 잘 관리'하고, 'TV를 보지 않으며', '신용카드를 쓰기 전에 세 번은 참으라'고 권하고 있다. 이쯤에서 그동안 자신의 생활태도를 돌이보면 앞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 고쳐야할 생활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깨달을 수 있으리라.

정승같이 써야 진정한 부자

진정한 부자는 재물이 많고 적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일을 현재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눌 수 있다. 물론, 그 일에는 개인적인 욕구와 함께 사회적인 요구, 즉 나눔이나 봉사가 필수적인 요소가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부자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 책임의식이 없이 재물에 대해 집착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래서 '부자들이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71.7%가 부정적으로 답하고 있다. '부자'의 반대말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 부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며, 부자가 되려는 마음과 부자로 살려는 마음이 있는 한 언젠가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 부자'인 것이다.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쓴다'는 옛말이 있다. 비록 하찮게 보이지만 정직하게 벌어서 떳떳하게 쓴다는 이 말은 더 이상 경멸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부의 사회적 책임, 부자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는 요즘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우리 모두의 화두인 것이다.

6개월간 매일 3천원의 전심값을 아껴 모은 60만원을 보내준 대전의 이름 없는 아저씨, 치료비로 모아준 성금을 남겨 오히려 더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 달라고 되돌려 주는 가난한 청원경찰……. '희망2006이웃사랑캠페인'을 통해 대기업의 큰 기부 속에서 수줍은 듯, 그러나 보석처럼 빛나는 숨결이 살아있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부자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큰 기쁨이며 또 희망이다.